뽑아 읽는 ≪맹자≫ 강독

제1강: '전국시대'에 대한 비판과 진단

○ 孟子見梁惠王. 王曰:「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 萬乘之國, 弑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弑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 不奪, 不饜.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王亦曰仁義而已矣, 何必曰利?」(≪孟子.梁惠王上≫)

【해석】
맹자(孟子)가 양혜왕(梁惠王)을 만났다.
임금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임금께서는 하필 이로움[利]을 말씀하십니까? 인함[仁]과 의로움[義]이 있을 따름입니다. 임금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하시면 대부(大夫)들은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라고 할 것이며, 선비[士]들이나 서인(庶人)들은 '어떻게 내 몸을 이롭게 할까'라고 하여, 위아래가 서로 이로움을 쟁취하려 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승(萬乘)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필시 천승(千乘)의 집안일 것이며,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그 임금을 시해하는 자는 필시 백승(百乘)의 집안일 것입니다. 만에 천을 취하고, 천에 백을 취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을 뒷전으로 하고 이로움만을 우선한다면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하면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없으며, 의로우면서 그 임금을 뒷전으로 하는 자는 없습니다. 임금께서는 인함과 의로움만을 말씀하셔야 하거늘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맹자·양혜왕상≫ 중에서)

○ 梁惠王曰:「寡人願安承敎.」
孟子對曰:「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 曰:「無以異也.」
「以刃與政, 有以異乎?」 曰:「無以異也.」
曰:「庖有肥肉, 廐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 獸相食, 且人惡之, 爲民父母, 行政, 不免於率獸而食人, 惡在其爲民父母也? 仲尼曰: 始作俑者, 其無後乎! 爲其象人而用之也.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孟子.梁惠王上≫)

【해석】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寡人)이 가르침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데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임금이 말했다. "차이가 없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임금이 말했다. "차이가 없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푸줏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에게는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판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는 짐승을 몰고가서 사람을 먹인 셈입니다.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이 혐오하거늘, 백성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정치를 한다면서 짐승을 몰고 가서 사람을 먹이는 상황을 면치 못한다면, 그가 백성의 부모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니(仲尼: 공자의 자)께서는 '순장용 인형을 처음 만든 사람은 후사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순장에 사용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한단 말입니까?"
(≪맹자·양혜왕상≫ 중에서)

○ 孟子曰:「求也爲季氏宰, 無能改於其德, 而賦粟倍他日. 孔子曰: 求非我徒也, 小子鳴鼓而攻之可也. 由此觀之, 君不行仁政而富之, 皆棄於孔子者也, 況於爲之强戰? 爭地以戰, 殺人盈野, 爭城以戰, 殺人盈城, 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 罪不容於死. 故善戰者服上刑, 連諸侯者次之, 辟草萊任土地者次之.」(≪孟子.離婁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염구(冉求: 공자의 제자)가 계씨(季氏: 공자 당시 권력자)의 가신이 되어 그의 덕을 개선시키지는 못하고 예전보다 재산을 늘려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염구는 나의 문도가 아니니, 얘들아 북을 울려 그의 죄상을 성토함이 가하다.' 여기에 근거해 보면, 임금이 인정(仁政)을 행하지 않는데도 부유하게 만드는 이는 모두 공자에게 버림 받을 자들이다. 하물며 그를 위해 전쟁을 강행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땅을 빼앗으려 전쟁을 벌여 죽인 사람이 들판에 가득하고, 성을 빼앗으려 전쟁을 벌여 죽인 사람이 성에 가득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토지를 몰고 가서 인육을 먹이는' 셈이며 그 죄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최상의 형벌에 처해야 하고, 제후를 연합하는 자는 그 다음 형벌에 처해야 하며, 황무지를 개간하여 토지를 늘리는 자는 그 다음 형벌에 처해야 한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孟子曰:「不仁哉, 梁惠王也! 仁者以其所愛及其所不愛, 不仁者以其所不愛

及其所愛.」公孫丑問曰:「何謂也?」「梁惠王以土地之故, 糜爛其民而戰之, 大敗, 將復之, 恐不能勝, 故驅其所愛子弟以殉之, 是之謂以其所不愛及其所愛也.」(≪孟子.盡心下≫)

【해석】
맹자가 말했다. "불인(不仁)하도다 양혜왕이여! 인(仁)한 자는 사랑함을 사랑하지 않는 데까지 미치지만, 불인한 자는 사랑하지 않음을 사랑하는 데까지 미치게 한다."
공손추(公孫丑)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맹자가 말했다. "양혜왕이 토지 때문에 그 백성의 피와 살을 썩어문드러지게 하면서 전쟁을 하였고, 대패를 하자 장차 복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 사랑하는 자제들을 내몰아 죽게 하였으니, 이를 일러 '사랑하지 않음을 사랑하는 데까지 미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맹자·진심하≫ 중에서)

○ 孟子曰:「有人曰: 我善爲陳, 我善爲戰. 大罪也. (≪孟子.盡心下≫)

【해석】
맹자가 말했다. "누군가 '나는 진법에 뛰어나다'고 하거나, '나는 전쟁에 뛰어나다'고 하는 이가 있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齊人伐燕, 勝之. 宣王問曰:「或謂寡人勿取, 或謂寡人取之. 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 五旬而擧之, 人力不至於此. 不取, 必有天殃. 取之, 何如?」
孟子對曰:「取之而燕民悅, 則取之. 古之人有行之者, 武王是也. 取之而燕民不悅, 則勿取. 古之人有行之者, 文王是也. 以萬乘之國伐萬乘之國, 簞食壺漿以迎王師, 豈有他哉? 避水火也. 如水益深, 如火益熱, 亦運而已矣.」(≪孟子.公孫丑下≫)

【해석】
제(齊)나라 사람들이 연(燕)나라를 쳐서 이겼다. (제나라)선왕(宣王)이 물었다. "혹자는 과인에게 '취하지 말라'고 하고, 혹자는 과인에게 '취하라'고 합니다. 만승(萬乘)의 나라가 만승의 나라를 쳐서 50일 만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 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천앙(天殃)이 있을 것입니다. 취하면 어떻겠습까?"
맹자가 말했다. "취했을 때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한다면 취하십시오. 옛 사람 중에 이를 행한 이가 있으니, 무왕(武王)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취했을 때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취하지 마십시오. 옛 사람 중에 이를 행한 이가 있으니, 문왕(文王)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만승의 나라가 만승의 나라를 치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임금의 군

대를 맞이한 이유가 어찌 다른 데 있겠습니까? 수화(水火)를 피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물이 더욱 깊고 불이 더욱 뜨겁다면 역시 옮겨갈 따름입니다."
(≪맹자·공손추하≫ 중에서)

○ 齊人伐燕. 或問曰:「勸齊伐燕, 有諸?」曰:「未也, 沈同問: 燕可伐與? 吾應之曰: 可! 彼然而伐之也. 彼如曰: 孰可以伐之? 則將應之曰: 爲天吏, 則可以伐之. 今有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則將應之曰: 可. 彼如曰: 孰可以殺之? 則將應之曰: 爲士師, 則可以殺之. 今以燕伐燕, 何爲勸之哉? 」
(≪孟子.梁惠王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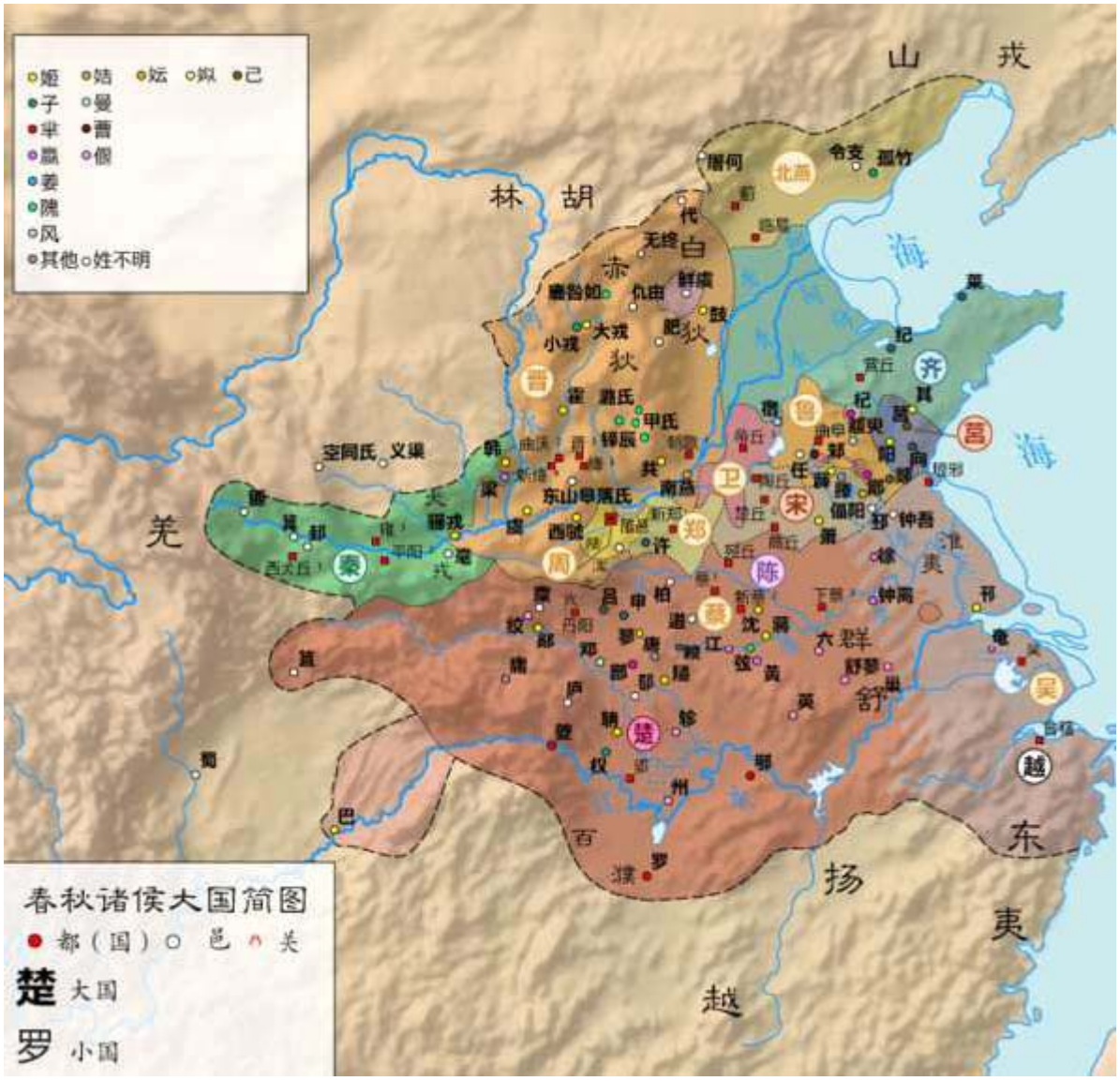
【 해석】

제(齊)나라 사람들이 연(燕)나라를 쳤다. 혹자가 물었다. "제나라에게 연나라를 치라고 권하셨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오. 심동(沈同)이 '연나라는 쳐야 하겠습니까'라고 묻기에, 내가 '그렇다'고 했소. 그가 그렇다고 여겨 친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렇다면 누가 쳐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면, '천리(天吏: 하늘의 대행자)라면 칠 수 있을 것이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살인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혹자가 '살인자는 죽여야 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렇다면 누가 죽여야 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사사(士師: 재판과 형을 집행하는 관리)라면 죽여도 될 것이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연나라가 연나라를 친 셈인데 어찌 권했겠습니까?"
(≪맹자·공손추하≫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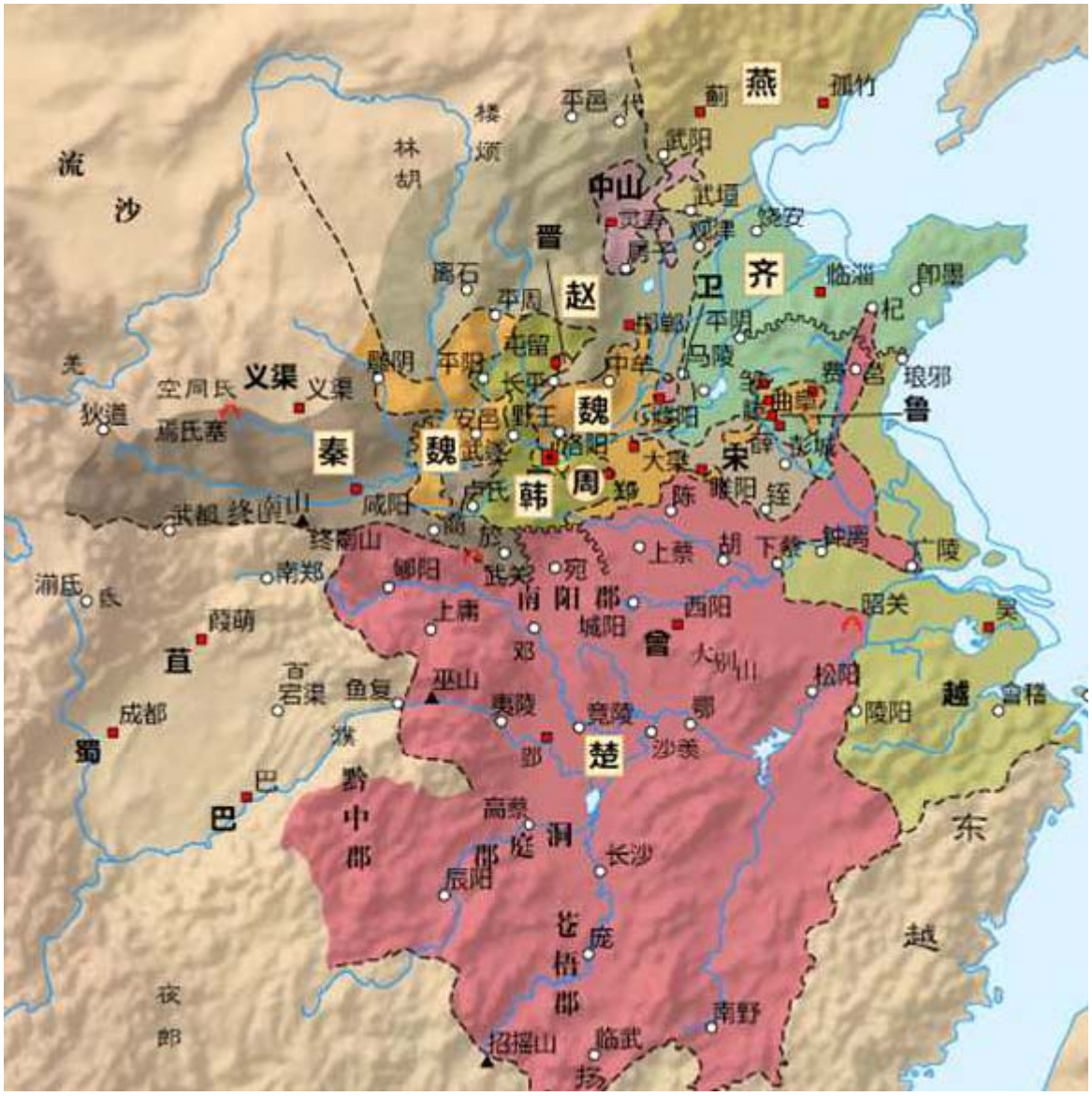
○ 孟子曰:「春秋無義戰. 彼善於此, 則有之矣. 征者, 上伐下也, 敵國不相征也.」(≪孟子.盡心下≫)

【해석】
맹자가 말했다. "춘추시대에 의로운 전쟁이란 없었다.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은 경우는 있었겠지만 말이다. 정벌[征]이란 위가 아래를 치는 것이며, 대등한 나라들은 서로 정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춘추시대
(春秋時代)


春秋诸侯大国简图
都（国）邑 关
楚 大国
罗 小国
姬 姞 妘 姒 己
子 曼
芈 曹
嬴 偃
姜
隗
风
其他 姓不明
山戎
林胡
白狄
赤狄
海
海
羌
东夷
扬越
百濮
北燕
齐
莒
鲁
卫
宋
郑
陈
蔡
周
秦
楚
吴
越
舒群

전국시대
(戰國時代)



流沙
林胡
楼烦
平邑
代
蓟
燕
孤竹
武阳
中山
武垣
灵寿
观津
饶安
晋
房子
离石
赵
卫
齐
临淄
即墨
平周
邯郸
平阴
杞
屯留
马陵
羌
平阳
长平
中牟
费
邑
琅邪
空同氏
义渠
义渠
狄道
焉氏塞
安邑
野王
魏
曲阜
鲁
秦
魏
武遂
洛阳
大梁
宋
薛
彭城
武都
终南山
咸阳
卢氏
韩
周
郑
陈
睢阳
铚
终南山
南郑
郦阳
武关
宛
上蔡
胡
下蔡
钟离
广陵
湔氏
氐
南阳郡
西阳
昭关
吴
葭萌
上庸
城阳
曾
大别山
苴
邓
百宕渠
鱼复
巫山
松阳
越
成都
夷陵
竟陵
鄂
陵阳
会稽
蜀
濮
鄧
楚
沙羡
巴
巴
黔中郡
高蔡
洞庭郡
长沙
东越
辰阳
苍梧郡
庞
夜郎
南野
招摇山
临武
扬